인요한 "윤 대통령측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신호 왔다"

"혁신안 불개입 메시지도 받아"
"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 등 조만간 움직임 있을 거라 확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 혁신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다고 소개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임기 중 윤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봐야죠"라며 "(혁신위가) 끝날 무렵에 (활동) 요약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의견을 거침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의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과 관련해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분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도 아니고 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것"이라며 "꼭 몇 월 며칠까지 하라 말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국회 일정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이 혁신위 권고대로 결단할 가능성과 관련해 "나는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 감축, 세비 삭감 등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혁신위 건의 사항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전날 당에 "혁신안 빨리 통과시켜라, 주춤하지 마라. 법적으로 바뀔 것은 과정이 필요하니 어렵지만,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다리지 말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같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뭘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기 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 40대·여성 인재풀 늘리기 나선 대통령실

총선 대비 대대적 인적 개편 준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 인적 개편을 준비 중인 대통령실이 젊은 인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류였던 기존 인선 기조에 변화를 주면서 '지·여·사'(지역 기반 40대 여성)를 대거 수혈하자는 게 상당수 대통령실 관계자의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며 1970년대생 여성 인재 풀을 대거 확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외연을 확장해 인재를 두루 넓게 쓰라는 인사를 강조했다"며 "남들이 보면 파격적이지만, 서구권 기준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인사 흐름을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19개 부처 장관 중 여성 장관은 3명(한화진 환경·김현숙 여성가족·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세 장관 모두 1970년대생은 아니다.

대통령실 수석 6명 중에서 여성은 김은혜 홍보수석(1971년생)이 유일하다.

아울러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를 통틀어 1970년대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1973년생)과 김 수석이 전부인 셈이다.

문제는 보수 진영의 여성 인재풀이 지나치게 한정됐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보수 진영 울타리를 넘어 정치권 외곽이나 중도 진영, 지방 출신 인재를 적극 물색해야 한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역도 영웅'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문성까지 두루 인정받아 정부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고 한다. 이른바 '제2의 장미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남성의 경우 40대와 50대 초반 인사들 대신 60대 이상이 내각에 대부분 포진했다는 점에서 1970년대생 남성들도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총선 출마 등으로 대통령실을 떠나는 수석비서관급 인사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출마를 타진한 장관들도 12월 예산 정국이 끝나는 전후로 본격 채비에 나설 계획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후임으로 거론되던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유력 검토된다. 당초 거론되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새 대변인으로는 김수경 대통령실 통일비서관(1976년생)이 유력 거론된다. 기자 출신으로 북한 인권을 연구해온 학자이기도 하다.

최지현 부대변인(1977년생)은 뉴미디어비서관에 승진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은 의전비서관으로 옮겨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등에 동행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은 원점 재검토 중이다. 그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이름이 오르내리곤 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PEC 참석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2박 4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1호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정장에 하늘색 도트무늬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김 여사는 검은색 바지 정장에 흰색 셔츠, 가슴엔 파란색 행커치프를 단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회의 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자유무역 체제 수호의 중요성, APEC 회원국 간의 연대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CEO 서밋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첨단산업 기업 투자신고식 등을 통해 각국 정상 및 재계 리더들과 교류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APEC 회의 참석과 맞물려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저녁 귀국해 국내 현안과 경제 일정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기현 "혁신위 정제되지 않은 발언 혼선…총선은 당 중심 종합예술"

지도부 해체·비대위 전환 일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당 혁신위원회를 향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요한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혁신위가 '조기 해체론'을 흘렸다가 활동 초기 내부에서 거론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진화하는가 하면,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용퇴를 압박하면서도 '시간을 두고 보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두고 한 말이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경북 구미에서도 기자들에게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혁신위가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총선은 단편 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작품"이라며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총선과 관련해 당에 여러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혁신위 안건을 잘 녹여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김기현 지도부 해체'나 '혁신위의 비대위 전환' 관측 등을 일축하면서 당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총선을 끝까지 잘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